

일본의 면방적 제품 중 무명이라야만 하는 것들

섬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인류에게 가장 친근하며 안심할 수 있는 섬유는 두말할 것 없이 천연 섬유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면(綿) 즉 코튼인데, 긴 역사 속에서 인류가 잘 보살피 온 ‘감성(感性)’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화학 섬유나 합섬 섬유 등 많지만 섬유로서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면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역사는 사람의 피부에 새겨져 있어 잠시도 면에서 떨어지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동양 사람에게는 면이 어울린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무명 : 면이라야 해’라는 소리가 소비자로부터 절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코튼의 니즈(needs)가 가장 큰 ‘베이비 키즈 웨어(baby·kids wear), 이너(inner), 타월(towel)’의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면제품의 현상을 살펴본다.

◎ 베이비(baby) · 키즈(kids) 웨어(wear) - 베이비 등에 정성들인 면 옷

피부가 민감한 베이비에게 입히는 옷에 면은 가장 적합한 소재이다. ‘미키 하우스(Mickey House)’는 2009년 추동절에 신생아용 ‘미키 하우스 퍼스트’에서 계절에 따라 3종류의 면소재로 골라서 정성껏 만든 여러 내의를 팔기 시작하였다. 하나는 수피마(Supima) 면으로 만든 원형 리브 편포 (円型 rib 遍布 : circular rib fabric)의 내의이다. 이 내의는 춘하추동 가리지 않고 입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소재로서 피트감이 좋고, 신축성이나 통기성이 좋다. 또 하나는 미국의 산 호아킨 면(San Joaquin cotton)을 사용한, 기분이 산뜻한 평편 내의로서, 깨끗한 느낌이 드는 가벼운 촉감이 특징이며, 특히 봄·여름에 적합하다. 셋째는 수피마(Supima) 면의 약연사를 사용한 부드럽고, 따스한 평편포를 겹쳐 만든 내의는 가을부터 겨울에 가장 적합하다. 평편포를 두장 합쳐서 보온성을 좋게 하고 있다.

피부에 닿지 않는 안감이나 평면 봉제(平面 縫製), 입체 재단(立體 裁斷)에 보태어, 화장품에도 사용되는 다기능의 습기 성분(濕氣 成分)인 ‘리피주어’를 나노레벨(nano-level)로 생지에 정착시키는 습기 가공(濕氣 加工)도 채용하고 있다. 가장 적합한 습기를 유지하여 본래의 피부가 갖고 있는 자극에 대한 배리어 기능(barrier 機能)을 보완해주고 있다.

키즈(kids) 옷에서는 베베가 데님 중심의 백화점 브랜드인 ‘와스크’로, 2009년 추동절부

터 다이쇼(大正) 방적이 ‘엘 파소(El Paso) 5’의 특별 주문 원면을 사용한 면 100% T-셔츠 및 파카(parka)를 팔기 시작하였다. 가공하지 않는 생지와 적색(赤色), 황색(黃色)의 3가지 색을 블렌딩(blending)한 독자적인 컬러의 이색 연사로 독특한 촉감을 만들어, 입어보면 입어볼수록 입는 맛이 좋다. 이 회사는 2009년 추동절에 그 동안의 이미지를 가장 중요시한 생산을 바꾸어, 상품 하나하나의 완성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상품 하나하나의 강한 힘을 갖게 하는 소재로서, 오리지널(original)한 면이 한몫을 하고 있다.

◎ 이너 - 내의에는 환경에도 부드러운 면을 뺄 수 없다.

내의에서 면을 뺄 수 없다. 좋은 촉감이나 흡한성은 물론 최근에는 환경을 배려한 관점에서 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앙글 미유키는 2009년 추동절에 적합하게 오가닉면(organic綿) 100%의 내의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신사용은 염색 공정에서 형광 표백(螢光 漂白)하지 않으며, 소재가 지니고 있는 자연스러운 촉감을 살리고 있다. 부인용은 캐주얼 테이스트(casual taste)의 릴렉싱 이너(relaxing inner)로서 판매하고 있다.

2009년 이 회사의 테마는 ‘환경에의 부드러움’이다. 일본산 비율이 90% 이상 된다는 것을 자랑하는 본사 공장에서는 편성에서 출하까지 일관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 공장 간에 수송의 필요성이 없으며, 수출 에너지 삭감까지 하고 있다. 2009년 2월에는 가시와라 사업소(柏原 事業所)에서 ISO 14001의 인증을 받았으며, 환경을 철저히 배려하면서 생산하고 있다.

물론 면이 원래 갖고 있는 좋은 촉감이나 흡한성은 예부터 면내의가 이들 장점의 지지를 받아온 가장 큰 이유이다. 실버옥스의 ‘안감 면평편(綿平編)’은 표면이 ‘극세(極細) 폴리에스터 평편’이고, 안감이 면 100%로 되어 있다. 안감이 면이므로 평편이면서 땀을 빨아들이고 탄력성이나 촉감, 세탁 내구성이 매우 좋다.

군제가 개질면(改質綿)을 사용한 이너 ‘더 군제’는 2009년 춘하절로부터 패밀리 대상으로 판매를 넓히고 있다. 면을 개질하여 흡한, 흡습성을 높여, 새로 소취 기능과 때가 잘 빠지는 특성을 덧붙였다. 면이 원래 좋은 점을 살려내는 방식을 고기능화 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 타월 - 미면이 일본산 타월을 받쳐주면서 브랜드도 활약

일본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타월은, 80%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부터의 수입 제품이다. 싼 가격으로 공격해 오는 수입 제품에 대하여, 일본 국내 제직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차별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마바리(今治) 타월과 오사카 센슈 타월 산지(大阪 泉州 towel 産地)’가 함께 ‘저팬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JAPAN brand 育成 支援 事業)’ 등을 통하여 생산을 해왔다.

최근 10년 동안에 일본 국내 제직업은 다종다양한 차별화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특히 제직 기술로 비약적인 성과를 올렸다. 다침 전자 자카드 장치(多針 電子 jacquard 装置)를 돌려 만든 ‘다중 거즈 직물(多重 gauze 織物)’이나 ‘요철 직물(凹凸 織物)’, ‘와플 직물(waffle cloth : 벌집처럼 마름모꼴로 짠 파일 무늬 직물)’ 등으로 대표되는 ‘특수 타월 개발’은 타월 그 자체의 차별화와 함께 용도 개발로도 이어졌다. 최근 시중에서 타월이 관심을 끄는 실마리가 된 타월 머플러(towel muffler)는, 지금 업계에서 없으면 안 되는 상품이 되었다.

이들 타월 직물을 더욱 확실하게 차별화 할 수 있게 한 것은 원료였다. 오사카 센슈 타월 산지는 JAPAN brand의 ‘정성어린 센슈 타월(泉州 towel)’을 개발하는데 있어, 미면의 ‘수피마(Supima)’와 ‘아케이라’ 면으로 특화하여 신상품을 개발하였으며, 후표백(後漂白) 타월의 특징을 최대한으로 살린 신상품의 존재감을 높여주었다.

이마바리(今治) 타월 산지는 아트 디렉터(art director)의 전면적 협력을 받아 이마바리 타월 브랜딩 프로젝트(今治 towel branding project)를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산지와 타월의 지명도를 높여 수요 확대를 노린 것인데 그 배경에는 제직업의 신상품 개발이 있으며, 수피마 등의 미면을 베이스로 신상품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